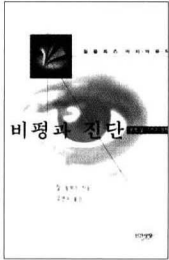


10月

10월 문화의 달을 맞아 명사들에게 기억에 오래 남는 책들을 추천받았다. 어떤 분은 자신의 취향대로, 또 어떤 분은 독자들을 배려해 책을 골랐다. 하지만 모두 뜻 깊은 책들이다. 그들의 향기로운 정신이 이 책을 한번씩 스쳐갔기 때문이다.

〈출판저널〉 '이달의 책 이달의 저자' 와 문인, 출판관련 각 협회 회장이 책을 추천해 주었다.

2월 〈길과 풍경과 시〉의 시인 허만하 추천



《비평과 진단》

질 들뢰즈 지음 | 김현수 옮김 | 인간사랑 | 326쪽 | 값 13,000원

“우리의 사유를 인습적인 것 밖으로 가져가는 혁명적 사유방법의 활달함이 돋보이는 책이다. 내 시작詩作에 큰 도움을 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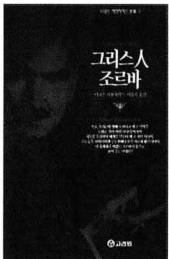
《페스트》

알베르 까뮈 지음 | 김화영 옮김 | 책세상 | 470쪽 | 값 10,000원

“묵묵히 죽음과 맞서 싸우며 지상의 목숨에 전율을 실천으로 확인하는 의사 리우의 성실한 행동에서 삶의 윤리적 지침을 발견할 수 있었다.”

* 허만하 시인은 두 권의 책을 추천하면서 전화로 구술받았다는 것을 밝혀달라고 요청해왔다.

5월 〈신정일의 낙동강역사문화탐사〉의 신정일 추천



《그리스인 조르바》

니코스 카잔차키스 지음 | 이윤기 옮김 | 고려원 | 416쪽 | 값 8,000원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다”라는 의미를 알려주는 책이다. “나는 내 키높이를 열심히 재고 있네. 사람의 키높이는 늘 같은 것이 아니라서 말일세. 인간의 영혼이란 기후, 침묵, 고독 그리고 함께 있는 사람에 따라 눈부시게 달라지는 것이라네” 이 대목이 가장 인상적으로 남는다.”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프리드리히 니체 지음 | 황문수 옮김 | 문예출판사 | 534쪽 | 값 18,000원

“한 줄 한 줄이 시인 책이다. 우리나라 시도 많이 읽지만 나는 그 시에서 즐거움을 얻지 못할 때 이 책을 읽는다. 고독, 괴로움의 의미가 잘 녹아 있는 이 책에서 “운명을 거부하려고 하면 안된다. 필연적인 것을 사랑하고 감내할 때 길이 발견된다”는 대목이 가장 와닿는다. ‘나’를 발견하게 해주는 책이다.”

6월 〈남자의 탄생〉의 전인권 추천



《진주 귀고리 소녀》

트레이시 슈발리에 지음 | 양선아 옮김 | 강 | 304쪽 | 값 9,5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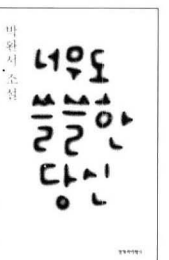
“예술작품의 제작과정과 탄생을 실감나게 보여주는 책이다. 작품의 탄생을 작가와 작가 주변인, 역사의 관계 속에서 재미있게 풀어보고 있어 흥미롭다. 오래 전 영어로 된 책을 읽었는데 최근 번역본이 나와 무척 반가웠다.”

《한국의 근대성 그 기원을 찾아서》

고미숙 지음 | 책세상 | 188쪽 | 값 4,900원

“우리가 갖고 있는 의식이 오래전에 형성된 것이 아니라 1897년 전후에 갑자기 생기게 된 것이라는 점을 잘 보여주는 책이다.”

7월 〈이탈리아 르네상스의 인문주의와 미술〉의 임영방 추천



《어느 날 나는 흐린 주점에 앉아 있을 거다》

황지우 지음 | 문학과지성사 | 172쪽 | 값 5,000원

“정확한 우리 국어의 묘사를 시도하면서 삶에 대한 철학적인 사유, 성찰을 담아낸 시들이 담겨 있어 좋아하는 시집이다. 삶의 깊이를 드러내기 때문에 철학적인 사유를 가능하게 해준다.”

《너무도 쓸쓸한 당신》

박완서 지음 | 창작과비평사 | 304쪽 | 값 7,500원

“일상사의 작은 부분에서도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음을 넉넉히 암시해 주는 소설들이 담겨 있어 좋아한다.”

8월 《식물성의 사유》의 박영택 추천



《문학과 예술의 사회사 1,2,3,4》

아르놀트 하우저 지음 | 백낙청 외 옮김 | 창작과비평사 | 각권 370쪽 내외 | 값 9,800원

“대학 때 이 책을 통해 미술이 사람들의 삶의 흔적임을 알게 되었다. 기존 미술사책이 미술 자체에 초점을 두었다면 이 책은 미술이 사람들의 삶의 흔적임을 총체적으로 바라본다. 그런 인식을 본격적으로 알려준 값진 책이다.”

《이미지의 삶과 죽음》

레지스 드브레 지음 | 정진국 옮김 | 시각과언어 | 448쪽 | 값 10,000원

“이미지 기원부터 영상매체 시대의 범주까지 기존 미술사의 좁은 범주를 벗어나서 이미지를 사고하게 해주는 책이다.”

9월 《바다의 실크로드》대표저자 양승윤 추천



《천년을 여는 미래인-해상왕 장보고》

최광식 외 지음 | 청아출판사 | 288쪽 | 값 18,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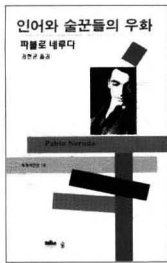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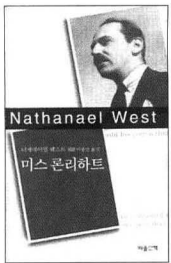
“우리나라 지도를 거꾸로 놓고 보면 무한한 가능성의 바다를 한 눈에 볼 수 있다. 일찌기 동북아의 해상 무역망을 장악했던 장보고를 21세기 한국인의 표상으로 삼아 해양부국의 가능성을 구체화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풀어 쓴 단테의 신곡》

한형근 지음 | 한국외국어대학교출판부 | 348쪽 | 값 14,000원

“단테의 신곡은 모든 인류의 고전이다. 이 책은 어렵게 느낄 수 있는 고전을 쉽고 담백하게 풀어냈다. 성인은 물론이고 학생들까지 쉽게 접할 수 있는 ‘가을에 읽기 좋은 책’이다.”

시인 신현림 추천



《미스론리하트》

너세네이얼 웨스트 지음 | 이종인 옮김 | 마음산책 | 156쪽 | 값 7,5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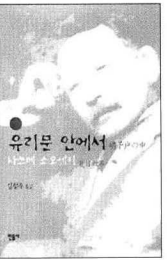
“헤밍웨이, 피츠제럴드와 더불어 미국 3대 작가로 꼽히기도 하는 너세네이얼 웨스트의 작품이다. 시니컬한 어조에, 서 나오는 비유와 상상력은 70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도 여전히 새롭다.”

《인어와 술꾼들의 우화》

파블로 네루다 지음 | 김현균 옮김 | 숲 | 182쪽 | 값 4,000원

“나무 한그루가 인생이라면 멀리서 바라볼 수도 있고 가까이에서 만져볼 수도 있을 것이다. 네루다의 시는 뿌리를 통해 나무를 둘러싼 물의 흐름까지 읽어낼 수 있다. 바람, 햇빛, 세월의 흐름... 이 역시 시공을 초월한 아름다움이 있다.”

시인 채호기 추천



《아, 입이 없는 것들》

이성복 지음 | 문학과지성사 | 166쪽 | 값 6,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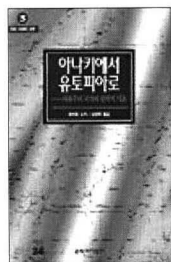
“현대시의 흐름은 두 가지로 들 수 있다. 신서정과 형식실험이 그것인데, 이성복의 시는 신서정의 편에 서 있는 듯 하지만 실은 그렇지 않다. 속세에서 튀기는 모습을 보여주면서도 수수하고 또 아름답다.”

《유리문 안에서》

나쓰메 소오세키 지음 | 김정숙 옮김 | 민음사 | 180쪽 | 값 7,000원

“일본 근대 문학을 대표하는 작가의 작품으로 대단한 서사는 없다. 사적이고도 진솔한 생의 단면 속에 감동이 깃들어 있는데, 근대작가임에도 낯고 오래지 않은 현대적 감각이 그저 놀랍다.”

소설가 복거일 추천



《한국전쟁사》

전쟁기념사업회 편 | 행림출판사 | 814쪽 | 값 30,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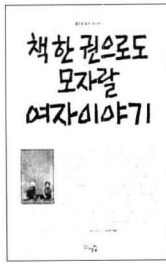
“우리 젊은이들이 6.25에 대해 너무 잘 모르는 것 같다. 북한의 호전적인 정권과 고통받는 북한주민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 안타까운 점은 이러한 책은 도서관이 아니면 구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아나키에서 유토피아로》

로버트 노직 지음 | 남경희 옮김 | 문학과지성사 | 426쪽 | 값 16,000원

“정통 자유주의 사상을 잘 설명한 고전이다. 요즘에 좌파와 우파 사이에 갈등하는 사람이 많은데 이 책이 중심을 잡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쉽지 않지만 등산하는 기분으로 읽어가다보면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바가 보인다.”

소설가 윤성희 추천



《가족사냥》

텐도 아라타 지음 | 양역관 옮김 | 상하권 380쪽 내외 | 각권 값 8,800원

“참혹하게 해부되는 현대의 가족이 담긴 소설로, 겉으로 보이는 따뜻함 속에 그러한 날카로움은 어디에 있을까 고민하게 하는 소설이다.”

《책 한권으로도 모자랄 여자 이야기》

유동영 외 지음 | 열림원 | 190쪽 | 값 8,500원

“이 땅의 모든 어머니와 할머니, 곧 여자의 일생에 관한 이야기다. 지난한 역사를 통과한 그들의 고단함이 묻어있는 책이다. 이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존재한다. 여자는 아름다다!”

대한출판문화협회 이정일 회장 추천



《우리 사상 100년》

윤사순 외 지음 | 현암사 | 526쪽 | 값 25,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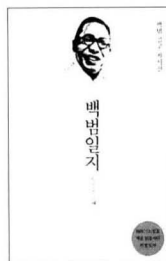
“세계의 많은 사상 가운데, 우리의 사상을 부각했다는 점에서 가치 있는 책이다. 동학사상에서 해체주의까지 20세기의 바탕이 된 우리 사상들을 폭넓게 조명하고 있다.”

《동양철학에세이》

김교빈, 이현구 지음 | 동녘 | 246쪽 | 값 7,000원

“노자, 공자, 장자 등 동양철학의 일가를 이룬 사상가들의 사상형성과정과 그 의미를 소개하고 있다. 풍부하게 인용된 고전도 읽는 맛을 더하지만, 동양철학을 새로운 시각으로 들여다보는 두 저자의 시선이 마음에 든다.”

한국장서가협회 신영길 회장 추천



《백범일지》

김구 지음 | 도진순 옮김 | 돌베개 | 456쪽 | 값 9,500원

“김구 선생은 자신의 전 생애를 민족에 바친 우리 겨레의 큰 스승이다. 그가 없었다면 오늘의 우리도 없었을 것이다. 평범치 않은 김구 선생의 진솔한 기록을 담고 있다.”

《현대 한국사학사》

조동길 지음 | 나남 | 612쪽 | 값 22,000원

“한국사학사에서 그동안 거론되지 않았던 많은 역사학자들을 거론하고 있다. 묻혀 있던 역학자들을 발굴하여 한국 현대역사학의 내용을 풍요롭게 만든 점이 인상적이다.”

한국만화가협회 신문수 회장 추천



《만화 18사략》

고우영 지음 | 두산동아 | 전 10권 각권 값 6,000원

“4천년 중국 대륙의 역사를 장인의 필치로 그려내고 있다. 그 영욕의 세월을 치열하게 살다 간 영웅호걸들의 이야기를 구성하는 솜씨도 단연 압권이다.”

《맹꽁이 서당》

윤승운 지음 | 웅진닷컴 | 전 10권 각권 값 6,000원

“조선조 역사를 알기 쉽게 풀어 놓았는데, 역사적 안목이 대단하다. 맹꽁이 서당에서 인물들을 중심으로 엮어지는 내용이 어떤 소설이나 드라마보다도 흥미진진하다”

※ 원고는 도착순입니다.